

선진미술관에서 배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美 전역 문화향유

미국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를 옆에 끼고 5번가를 건너보면 '미술관 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저마다 독특한 외양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바로 '뮤지엄 마일(Museum Mile)'이다. 뉴욕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현대미술의 메카인 구겐하임미술관, 뉴욕시립미술관, 디자인박물관, 사진박물관, 프리컬렉션 등 수십여개가 밀집돼 일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를 옆에 끼고 5번가를 건너보면 '미술관 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저마다 독특한 외양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바로 '뮤지엄 마일(Museum Mile)'이다. 뉴욕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해 현대미술의 메카인 구겐하임미술관, 뉴욕시립미술관, 디자인박물관, 사진박물관, 프리컬렉션 등 수십여개가 밀집돼 일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조각, 공예품을 볼 수 있는 미국 전시관(American Wing), 아프리카·오세아니아·이집트·유럽의 조각 및 장식미술품을 진열해놓은 전시관 등이 들어서 있다. 2층에는 유럽미술의 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럽회화 컬렉션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인도의 미술품을 모아놓은 동양과 아시아 미술 전시관,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초

란트, 베르메르의 작품 등이 있으며 스페인 갤러리에는 벨라스케스, 이탈리아 갤러리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오로, 라파엘로 등의 작품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는 안드레 메이어 갤러리에는 르노와르, 고흐, 고갱, 세잔 등 신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파, 후기 인상파로 이어지는 대가들의 걸작이 전시돼 있다.



뉴욕 맨하튼 5번가 '뮤지엄 마일'에 자리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품 200만점, 관람객 500만 '세계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100여개...직원 30% 교육 종사자 3~7세 아동 '첫번째 감상' 수업 미술 흥미 키워

들어서면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관람객들을 따뜻하게 맞는다. 특히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 관람객들을 위해 나라별로 안내문이 비치돼 있어 친절한 인상을 준다. 미술관은 크게 17개 부문으로 나뉘어 컬렉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층에는 미국 작가들의 회화,

까지 각 시대의 대표적인 방을 재현한 아메리칸 전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98년 삼성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후원기금 500만달러로 개관한 '한국미술실(Arts of Korea Gallery)'은 400여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이 가운데 유럽회화 컬렉션은 미술관의 백미로 꼽힌다. 네덜란드 갤러리에는 렘브

란트, 베르메르의 작품 등이 있으며 스페인 갤러리에는 벨라스케스, 이탈리아 갤러리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오로, 라파엘로 등의 작품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는 안드레 메이어 갤러리에는 르노와르, 고흐, 고갱, 세잔 등 신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파, 후기 인상파로 이어지는 대가들의 걸작이 전시돼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방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매년 예술가와 시대문화를 조망하는 30여개의 기획전을 개최한다. 고흐, 드가, 베르메르, 쇠라, 중국계국의 미술, 비잔틴 미술 등의 기획전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전시들이다. 이와함께 이 미술관은 뉴욕, 미국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100여개가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과 미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갤러리 투어, 강의, 심포지엄, 영화 상영, 교사연수워크숍, 도서관 자료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3세 이상 어린이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약 35만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3~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번째 미술감상(Start with the Art)'은 미술작품을 스케치하거나 작품에 관한 이야기 시간을 갖는 등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족을 위한 Charles H. Tally 예술의 밤' 행사는 에듀케이터의 안내로 6~12세 어린이와 부모들이 전시작품을 둘러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인목을 키워준다.

또 미술관은 미국 각지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며 매년 5천여명 이상의 미술작품을 외국 미술관에 임대해 세계인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풍부한 아트상품이다.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아트숍에는 예술을 일상과 접목시킨 수백여종의 아트상품이 관람객들의 지갑을 연다. 소장품도록이나 전시도록에서부터 에듀테인먼트를 강조한 어린이용 미술교재, 패션잡화, 사무용품 등 다양한 아트상품은 메트로폴리탄의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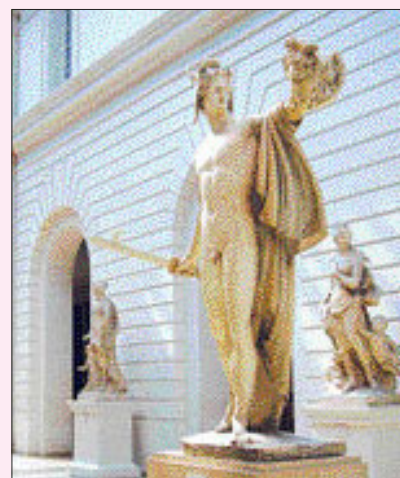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 관계자는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1천800명의 직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갤러리 투어, 갤러리 토크를 마련, 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손'들 기부가 메트로폴리탄 키웠다

록펠러 등 기증 힘입어 세계 굴지의 미술관으로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 '젊은 여인의 초상'



미술관 1층에 들어서 있는 '유럽 조각 전시관'. 로마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메두사의 목을 든 페르세우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큰손'들의 기부가 큰 힘이 됐다. 지난 1866년 미국 외교관인 존 제이(John Jay·1817~1894)는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파티에서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필요성을 제안했다. 당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업가와 예술인, 시민들은 뉴욕 중심지에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은 후 지난 1870년 임대건물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탄생시켰다. 이후 1880년 지금의 센트럴파크로 동지를 옮긴 미술관은 1954년 대규모 개축을 통해 현대식 전시장을 갖췄다.

개관 당시 메트로폴리탄의 소장품은 유럽회화 170여점이 전부였다. 하지만 미술관이 제모습을 갖추면서 평생 수집해온 컬렉션을 기증하는 미술애호가들이 줄을 이었다. 이후 20세기 들어 피에르 폰트 모건, 로버트 리먼(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 창시자), 록펠러 가(가) 등의 기부에 힘입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굴지의 미술관으로 등극했다.

특히 로버트 리먼의 컬렉션 가운데에는 마티스, 렘브란트, 르노와르, 고흐, 세잔, 고갱 등 인상파의 진수를 보여주는 걸작들이 대거 포함돼 미술관의 품격을 높였다. 록펠러 가문은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젊은 여인의 초상' 등 다수의 회화와 아프리카 미술품을 내놓았다. 현재 전 세계에 40여점이 남아있는 베르메르의 작품 중 5점이 이곳에 소장돼 있다.

/*박진원기자 jhpark@kwangju.co.kr



3~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메트로폴리탄의 '첫번째 미술감상(Start with the Art)'의 수업장면. 어린이들은 작품관람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를 키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제공) (뉴욕=박진원기자 jh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LCE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민음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주), 토우드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and (주)홈컨부동산.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details.